

3년 만에 열리는 함평나비축제...손님 맞이 한창

함평군 축제 보고회 갖고 전반 점검

4월29일부터 5월8일까지 축제 개최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취소됐던 함평 나비축제가 3년 만에 재개되는 가운데 전남 함평군의 손님 맞이 준비가 한창이다.

함평군은 7일 오전 제24회 함평나비대축제 추진계획 보고회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상의 함평군수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는 군청 주요 간부와 읍·면장 등이 참석했으며 축제 전반에 걸쳐 계획과 운영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축제 기간 중 5일 간의 휴일이 포함돼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코로나19 방역, 교통 및 안전사고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축제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축제에선 나비놀이터, 소원터널, 수생식물관 등 신규 프로그램과 어린이날 각종 이벤트는 물론, 가족과 연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 사랑앵무새 먹이주기, 야외 나비 날리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이와 함께 함평나비 미디어 파사드, 꽃과 정원을 주제로 한 특별전시회 등 문화예술 행사도 다채롭게 열린다.

함평군 관계자는 "함평나비대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5년 연속 최우수축제, 2012세계축제도시 선정,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수상 등 대한민국 대표 축제인 만큼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24회 함평나비대축제는 오는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함평 엑스포공원 및 함평읍 제2무대에서 체험, 공연,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열린다.

함평=김광춘 기자



이상의 함평군수가 7일 오전 군청 소회의실에서 제24회 함평나비대축제 추진계획 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함평군 제공)

목포시, 영산강하구둑 노후 도로 정비

영암에서 목포 방향 4차선 도로 재포장...환경 개선·교통편의 제공



목포시가 영산강하구둑의 도로 환경 개선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노후 도로를 정비했다.

하구둑 도로는 영암과 무안·광주를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로서 특히 대불산단과 신항

등과 연결된 서남권 물류수송로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 화물 차량의 이동이 많은데 해당 제1차아파트 인근의 하구둑 도로는 노후 뿐만 아니라 갈라짐, 포트홀, 겨울철 결빙 등으로 인한 파손이 많아 재포장이 시급한 구간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비 1억5천만원을 투입해 지난달 26일 영암에서 목포 방향 4차선, 연장 500m에 대한 도로 포장을 완료했다.

노면이 재정비됨에 따라 인근의 제1차아파트 등 주변 공동주택단지의 소음 민원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올해 상반기 중 도로 덧씌우기 예산 7억원을 집중 투입해 상동 원예농협앞~우진아트빌 아파트 구간 등 주요 간선도로 3.7km를 포장할 계획이다.

목포=박정수 기자

영암군,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사업 신청 접수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접수

영암군은 저비용 무재초제 농업 실현으로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벼 재배 농가의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3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건설팀에서 논벼 재배 농가 왕우렁이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관내 친환경·일반 벼 재배 농가를 지원할 예정으로, 신청대상자는 사업신청서와 첨부서류(농산물인증서 사본, 농업경영체등록증 등)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단, 21년에 동계작물 미재배농가 또는 깊이갈이 미 실시 농가는 사업 신청이 제한된다.

왕우렁이 농법은 제초제 대신 왕우렁이의 초식 특성을 이용해 잡초를 제거하는 친환경

농법으로, 피, 물달개비 등 일반 잡초는 물론 제초제에 내성을 가진 슈퍼잡초까지 99%이상 제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왕우렁이 농법 실천 농가는 별도의 차단망을 설치해 왕우렁이가 인근 논지 및 자연 환경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용 후엔 의무적으로 왕우렁이를 수거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왕우렁이 농법 실천 농가는 지속적인 왕우렁이 농법 실천을 위해 의무적으로 왕우렁이를 수거하고 벼 수확 후 동계작물 재배 및 깊이갈이 실시로 왕우렁이 월동을 예방해야 한다"라며 "친환경 농법에 활용하는 왕우렁이로 인한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신안군, 파리패션위크 패션쇼 드디어 공개

퍼플교 배경 펼쳐지는 영화같은 패션쇼...양해일 디자이너와 공동 기획

신안군은 지난 4일 양해일 디자이너와 공동 기획한 "22-23F/W 파리 패션위크"에 선보일 디지털패션쇼 시사회를 신안군 영상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신안군과 양해일 디자이너가 공동 제작한 영상은 UNWTO가 2021년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한 퍼플섬을 비롯한 아름다운 천사섬을 배경으로 촬영하기로 하여 기획 단계부터 많은 기대를 받아왔다.

영상은 코로나19로 실의에 빠진 모델의 등장으로 시작되고, 팬데믹을 극복해나가는 힘찬 위풍과 마침내 승리하는 모델들의 환

호로 마무리되어 한편의 영화같은 패션쇼로 제작되었으며, 퍼플교와 천사대교, 자은 백길해수욕장이 배경이 되었다.

양해일 디자이너는 한국의 전통미를 살린 디자인과 메시지가 담긴 컬렉션으로 매년 화제가 되는데, 이번 시즌에는 코로나19의 시련과 극복을 주제로 하여 2022년 트렌드로 떠오르는 보라색계열의 '일월 오봉도'를 재해석한 컬렉션으로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번 영상은 3월 5일 오후 2시(현지시간)부터 파리패션위크 홈페이지에서 송출되고



이으며, 신안군 유튜브채널(<https://youtu.be/bJTWswuJQXc>)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안=이덕주 기자

무안군, 중학생 대상 인터넷 수강료 지원사업 접수

총 300명 규모 지원...오는 24일까지 학교를 통해 신청 가능

무안군은 관내 중학생들의 학력향상 지원을 위해 인터넷 수강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접수기간은 오는 3월 24일까지이며, 군에서 수강료 5만원을 전액지원하므로 학생 부담은 없다.

각급 학교를 통해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지원규모는 총 300명 내외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1년 동안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 전과목 수강이 가능하다.

군은 지난 2016년부터 강남구청과의 인터넷수능방송 공동이용 협약 체결을 통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료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중학생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 운영하고 있다.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은 EBS 유명강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1,095강좌의 2만여개 강의와 수준 높은 강의 콘텐츠로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학부문의 교육비 부담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기에 자치행정과장은 "수도권 학생들과의 학력격차를 해소하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중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며 "많은 학생들이 사업에 신청해 수강료 지원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이성기 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